

1. 직접화법과 간접화법

- 1) 직접화법: 어떤 사람이 말하는 문장을 따옴표(“”)를 사용하여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
- 2) 간접화법: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달자의 말로 고쳐 전달하는 방식.
- 3) 직접화법인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아니면 그 반대로 표현할 수 있다.
 - 전달동사 변경: say → say, say to → tell, 의문문에 사용된 say to → ask
 - 형식 변경: 의문사가 있을 경우 [의문사 + 주어 + 동사], 의문사가 없을 경우 [if/whether + 주어 + 동사]로 바꾼다.
 - 인용부호(따옴표) 삭제
 - 인칭대명사 변경: 전달자의 입장에 맞추어 바꾼다.
 - 시제 일치: 전달동사의 시제에 맞추어 that절 동사의 시제를 바꾼다.
 - 부사구 변경: 전달자의 상황에서 시간의 부사구 등을 바꾼다.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He said to his wife, "Do I look good?"

- ✓ 위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려면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이 의문문이므로 전달동사 said to를 asked로 바꾸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므로 if나 whether를 넣은 뒤, I를 주어인 He로, 동사 look을 과거시제 said에 맞추어 looked로 변경하여 'He asked his wife if[whether] he looked good.'로 표현할 수 있다.

<해석> 그는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나 괜찮아 보여?"

She said to the clerk, "Do you have one in brown?"

- ✓ 위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려면 전달동사 said to를 asked로 바꾸고, 의문사가 없으므로 if나 whether를 넣은 뒤, 주어인 you를 가리키는 대상인 the clerk이므로 고치거나 3인칭 단수 대명사(he/she)로 고치고, 동사 have의 시제를 주절의 시제인 과거시제 had로 고쳐 'She asked the clerk if the clerk(he/she) had one in brown.'로 표현할 수 있다.

<해석> 그녀는 점원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것의 갈색을 가지고 있나요?"

2. 뒤에 -ing가 오는 표현들

- 1) cannot help + -ing :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 밖에 없다
cf) cannot (help) but + 동사원형 = have no choice but + to부정사
- 2) It is no use + -ing : ~해도 소용없다
- 3) It is worth + -ing : ~할 가치가 있다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It is no use crying over split milk.

- ✓ It is no use -ing는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해석> 쏟은 우유에 대고 울어도 소용없다.(후회해도 소용없다.)

I guess we cannot help taking a taxi.

- ✓ cannot help -ing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이다.

<해석> 내 생각에 우리는 택시를 잡지 않을 수 없어.(택시를 타야 해.)

Is it worth reading?

- ✓ It is worth -ing는 '~할 가치가 있다'는 표현이다.

<해석> 이것은 읽을 가치가 있니?

미리보는 빈출문장

★ “1)It was no use calling her at home, either. Her mom just 2)told me she was busy. She doesn't remember 3)who her friends are!” I said with anger.

1) It is no use -ing

It is no use -ing는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no use 다음에는 동명사가 와야 한다.

2) 4형식 수여동사

4형식 동사는 목적어를 2개 가지며, S + V + I.O(간접목적어: ~에게) + D.O(직접목적어: ~를)의 어순으로 구성된다.

tell도 수여동사 중 하나로, ‘간접목적어에게 직접목적어를 말해주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tell + D.O + to + I.O의 3형식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직접목적어 앞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3) 간접의문문

간접의문문은 직접의문문[의문사 + 동사 + 주어]과 달리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을 가진다.

"who are her friends?"라는 의문문이 문장 내에서 간접의문문으로 바뀌어, remember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석> “그녀의 집에 전화하는 것 또한 소용이 없었어. 그녀의 엄마는 그저 그녀가 바쁘다고 말할 뿐이었어. 그녀는 그녀의 친구가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나는 화내며 말했다.

★ They 1)were beyond me. 2)Frustrated, I looked up 3)and saw Emma 4)sitting in the front row.

1) be beyond ~

~가 이해할 수 없는

2)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감정의 형용사는 주어가 사람일 때 과거분사를(-ed), 사람이 아닐 때 현재분사(-ing)를 사용한다.

위 표현은 "As I was frustrated"의 부사절에서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was가 being으로 바뀌어 생략된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의 생략된 주어가 I이므로 과거분사 frustrated를 써야 한다.

3) 병렬구조

등위접속사 and를 통해 병렬구조로 이루고 있다.

병렬구조를 이루는 문장성분은 주어 I에 이어지는 과거시제 동사 'looked~'와 'saw~'이다.

4)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명사를 단독으로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서 전치수식을 하지만,

구를 이루어 수식할 때는 명사의 뒤에서 후치수식을 한다.

수식받는 명사인 Emma가 앉아있는 행위를 하는 주체이므로 능동, 진행의 의미로 쓰이는 현재분사 sitting으로 수식하였다.

Emma와 sitting 사이에는 [주격관계대명사 + be동사]인 who was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해석> 그것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좌절하며 나는 고개를 들어 앞줄에 앉은 Emma를 보았다.

★ I did not know 1)what to think! Was that 2)how Emma always got good grades?
I felt really angry at her but did not know 1)what to do.

1) 의문사 + to부정사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원형]는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이때 의문사절을 의문사구로 바꿀 수 있으며, to부정사를 이용해 [의문사 + to부정사]로 표현할 수 있다.

각각 what I should think, what I should do와 같은 의미이다.

2) 간접의문문

"How does Emma always get good grades?"를 간접의문문으로 바꾼 형태의 문장이다.

간접의문문절이 be동사 was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석>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저것이 Emma가 항상 좋은 성적을 받은 방법인걸까? 나는 정말 그녀에게 화가 났지만,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미리보는 빈출문장

★ “1)Stop writing and 2)put your pens down,” said Mr. Reed. He 3)started to collect the exam papers.

1) to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의미차이 있음)

stop은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모두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 그 의미가 다르다.

stop+ing: -하는 것을 멈추다, stop+to동사원형: -하기 위해 멈추다.

2) 이어동사

동사 뒤에 부사가 이어서 나오며,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하는 동사를 이어동사라 한다. (ex. put down, turn on, give up...)

목적어가 있는 경우 [동사 + 목적어 + 부사], [동사 + 부사 + 목적어]의 어순으로 쓸 수 있으며, (=put down your pens o)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동사+목적어+부사]의 어순으로만 쓸 수 있다.(=put it down o, put down it x)

3) to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의미차이 없음)

start, begin, like, hate, love 등의 동사는 to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가질 수 있으며 의미에 큰 차이가 없다.

<해석> “쓰던 걸 멈추고 펜을 내려놓으세요.” Reed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는 시험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 I was asking myself, "Should I tell Mr. Reed 1)once the exam 2)is finished? But what would happen to Emma 3)and what about for me?"

1) 접속사 once

once가 접속사로 쓰일 때는 ‘~하자마자’, ‘~할 때’, ‘일단 ~하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수동태

주어가 the exam으로, 시험이 ‘완료된’ 것이므로, [be + p.p.]의 수동태로 표현하였다.

3) 병렬구조

등위접속사 and가 두 개의 의문문을 병렬구조로 연결한다.

<해석>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Reed 선생님께 말해야 할까? 하지만 Emma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 She was looking at it 1)and did not 2)hear Mr. Pendanski walking quietly up to her table. He said nothing. Emma looked up, 3)surprised.

1) 병렬구조

등위접속사 and가 주어 She에 이어지는 과거시제 동사 ‘was looking ~’과 ‘did not hear ~’를 이어주고 있다.

2) 5형식 지각동사

[주어+동사+목적어+목적격보어]의 5형식 문장에서 동사가 hear, watch, see, feel, taste 등과 같은 지각동사일 경우, 목적격보어 자리에는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만이 와야 한다.

3)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감정의 형용사는 주어가 사람일 때 과거분사를(-ed), 사람이 아닐 때 현재분사(-ing)를 사용한다.

의미상의 주어인 Emma가 놀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므로 과거분사 surprised를 써야 한다.

<해석> 그녀는 그것을 보고 있느라 Pendanski 선생님이 조용히 그녀의 책상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Emma는 고개를 들고 깜짝 놀랐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20-02-13

2) 제작자 : 교육지대(주)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 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